



Analyst
김도하
dohakim@sk.com
02-3773-8876

은행

3월 연체율: 모니터링은 필요하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연체율

국내은행의 3월 말 연체율은 조선사 한 곳 연체를 제외 시 70개월 연속 YoY 하락한 이후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됨. 하반기에는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과거 대출 성장 속도와 최근 연체 추이를 보면 자영업자 및 가계 신용대출의 건전성은 유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연체율의 절대치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추세 감안시 은행업종 대손지표는 올해도 예년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국내은행 3월 연체율 0.46% (+4bp YoY), 경상적으로는 flat 추정

국내은행의 3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 (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46%로 4bp YoY 상승했으나, 조선사 한 곳의 exposure를 제외한 경상 연체율은 0.41%로 추산돼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 대기업 연체율은 0.74%로 29bp YoY 상승했으나 조선사 한 곳 제외 시 0.3% 미만으로 추산되며, 중소기업 연체율도 0.56% (-3bp YoY)로 하락세 지속. 단, 2018년 9월부터 공표된 자영업자 연체율은 0.38% (+5bp YoY)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가계 연체율은 주택담보 0.21% (+3bp YoY), 신용 등 일반대출 0.45% (+5bp YoY)로, 2018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상승을 이어감 (그림 1~6 참조)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본문 그림 9)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주: '18년 4월 이후는 성동조선 연체금액 제외한 기준

기업 연체율은 여전히 하락세지만, 총 연체율은 곧 상승 전환할 전망

2016년 및 2018년 발생한 조선사 세 곳의 연체를 제외하면 은행 연체율은 70개월 연속 YoY 하락한 후 이번 3월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 하반기에는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기업: 3월 말 기업 연체채권 잔액은 성동조선 제외 시 4.1조원으로 추산되며, 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 연체 규모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이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12월 말 이후 연체 잔액이 20%대 YoY 증가를 보이며 연체율 상승 중임

- 가계: 3월 말 가계 연체채권 잔액은 2.4조원으로 24.6% YoY 증가 (그림 9~10, 2018년 잔액 평균 2.1조원). 반면 연체율 측면에서는 3~5bp의 YoY 상승률을 보여 상승 속도는 완만하며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5 참조)

연체채권 잔액 YoY 증가율 (추정) (본문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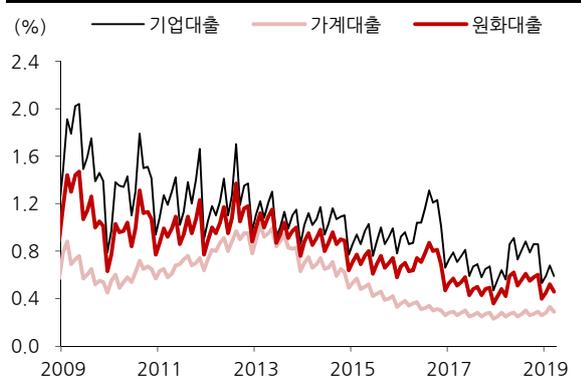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주: '18년 4월 이후는 성동조선 연체금액 제외한 기준

상승 속도는 지켜봐야 하나 절대 수준은 여전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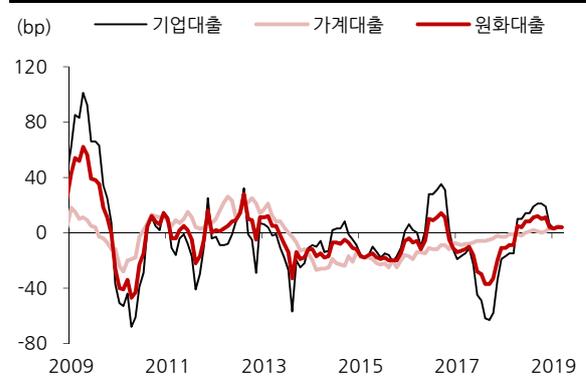
국내은행 연체율은 2013년 하반기부터 추세적인 하락을 지속해 오. 이자부담 증가와 경제지표 부진 등에 따라 가계 연체지표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은 상승 중이나 절대치의 수준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상태. 더불어 기업 연체는 아직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중. 과거 대출 성장의 속도와 최근 연체 추이를 고려할 때 자영업자 및 가계 신용대출의 건전성은 유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우려를 제기하기엔 이르다고 판단됨. 총 연체율의 하락세 지속을 감안하면 은행업종 대손지표는 2019년에도 예년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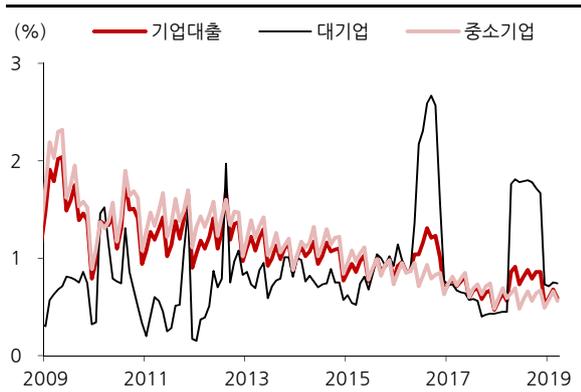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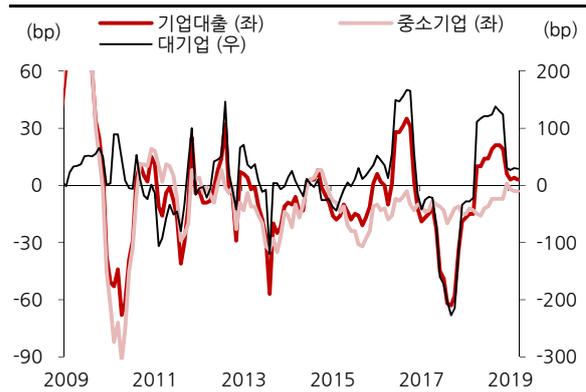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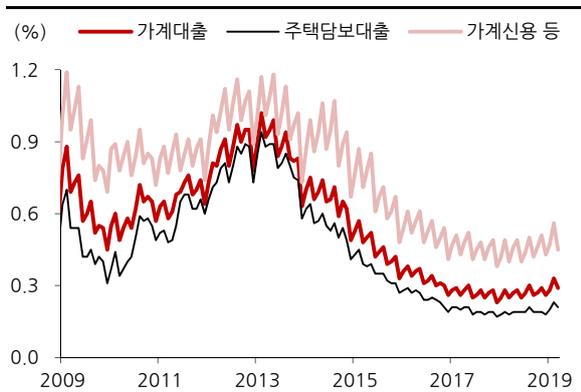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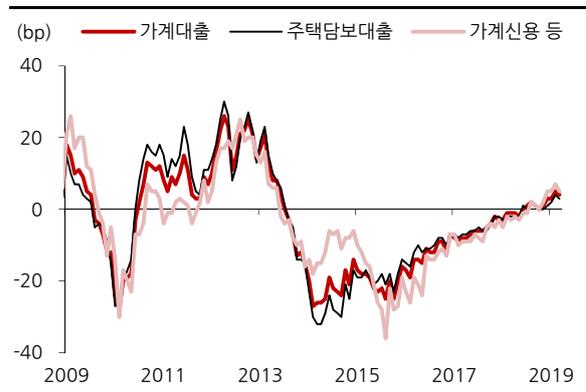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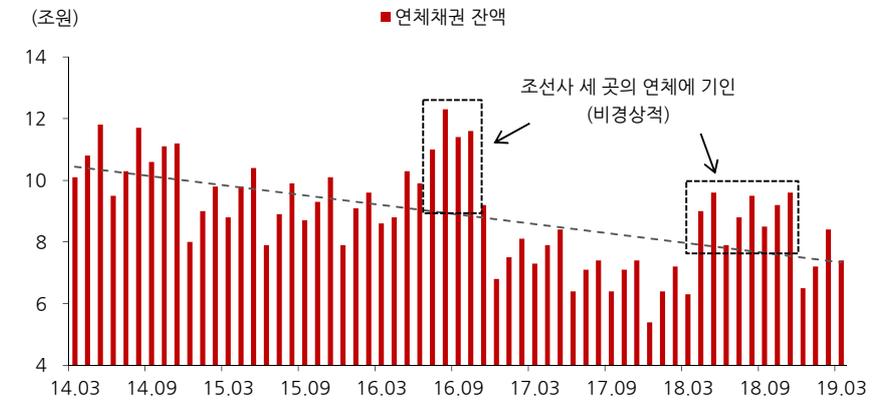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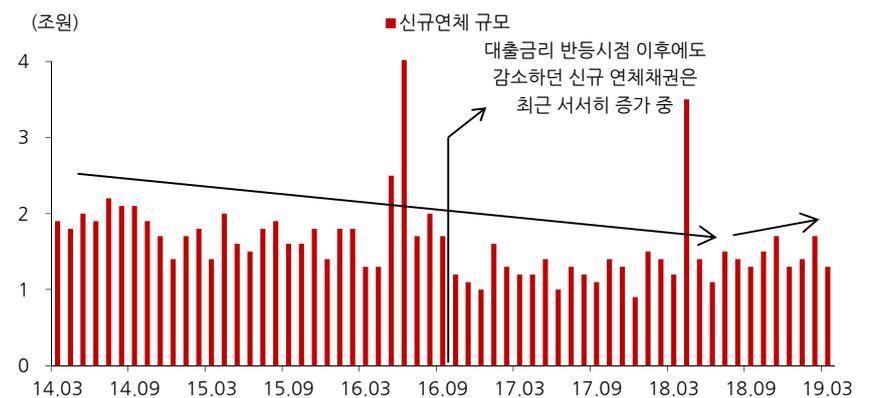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대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체 규모는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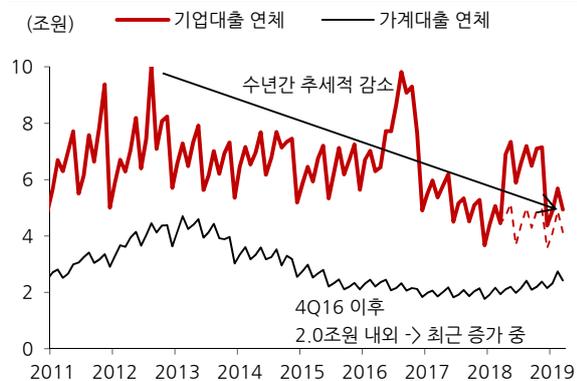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8. 국내은행 월 중 신규연체 규모: 최근 들어 서서히 증가 중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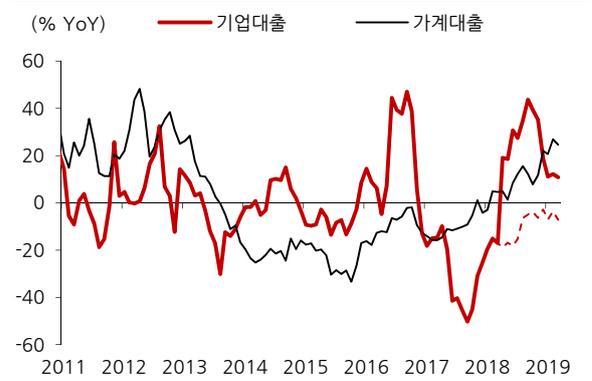
그림 9.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주: 점선은 '18년 4월 발생한 성동조선 연체금액 제외한 기준

그림 10.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주: 점선은 '18년 4월 발생한 성동조선 연체금액 제외한 기준

Compliance Notice

- 작성자(김도하)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19년 5월 17일 기준)

매수	90.6%	중립	9.4%	매도	0%
----	-------	----	------	----	----